

다산은 술잔 띄워 시를 짓고



다산 정약옹과 초의선사 등 조선 후기 대표 지식인들의 예술 흔이 깃든 강진 백운동별서 일대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백운동별서 정원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초의는 붓잡아 그림 그렸네

# 마당 돌아가는 아홉구비 '유상곡수' 강진 백운동별서 문화 명소 키운다

〈흐르는 물위에 술잔 띄우고 노는 풍류〉

1812년 9월 12일 강진 유배 중이던 다산 정약옹은 제자들과 월출산 산행에 나섰다 하산하는 길에 지금의 강진 성전면 월하리 백운동의 풍경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다. 100그루가 넘는 매화나무와 낙락장송 군락이 중심을 잡은 원림에 눈길을 빼앗겼다. 다산은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따라 걷다 이담로의 별서(別墅)에 반해 하룻밤 잠을 청한다. 다산은 백운동별서의 아름다움을 시로 짓고 제자 초의에게 풍경을 그림으로 담게 한다. 이에 이담로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과 예술가들과의 인연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후손들에게 이들의 시와 그림이 담긴 백운첩을 팔지 말고 영원히 지켜라는 말을 남기고, 이에 후손들은 백운동 별서와 다산, 초의의 흔적이 담긴 수많은 기록을 여전히 보존해 오고 있다.

200여년 넘게 이어져 온 강진 백운동서원의 아름다운 인연이 빛을 보고 있다. 강진군이 백운동서원 일대의 자연을 보존하고 인근의 월남사지, 무위사, 강진 차밭을 하나로 묶는 관광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조선의 문장'을 아름다운 문체로 전해주고 있는 한양대 정민 교수가 백운동서원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 지난해부터 백운동서원 관광개발을 위한 자문회의를 참여하고, 관련 책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글항아리)도 펴냈다.

별서는 밥을 해먹으면서 며칠씩 거거 할 수 있는 일종의 별장을 말한다. 백운



백운동별서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 보이면 마당에 매화 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동별서는 17세기 이담로가 만든 별장이며, 12대에 걸쳐 후손들이 살고 있다. 백운동별서가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국내 원림에서 이처럼 오랜 역사가 있고 후손이 대를 이어 살고 있으며, 다산과 초의 등 거물들이 시를 짓고 그림을 그렸던 곳이 이곳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산과 초의의 행적이 담긴 백운

강진군, 정원 일대 자연 보존 월남사지·무위사·차밭 묶어 문화 관광 명소화 사업 추진

한양대 정민 교수 자문위 참여 '강진 백운동 별서정원' 책 발간

첩이 보존돼 있는 문화공간이며, 인근은 다산의 제다법에 따라 떡차가 만들어진 차문화 부흥의 현장이기도 하다. 다산이 백운동 원림에 반해 제자 초의에게 '백운동도'를 그리게 하고 거기에 13수의 시를 지어 붙였는데 그게 '백운첩'이다.

또 백운동은 고려중기 불교사의 핵심을 이룬 공간이며 대각국사 의천이 시를 남기고, 보조국사 지눌, 진각국사 혜심 등 고려 불교사의 고승들의 수행처이기도 하다.

더구나 주변 자연이 너무 아름답다. 잘 보존된 계곡과 오래된 나무 바위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동백과 매화 등이 피어

나 소쇄원에서는 느낄 수 없는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정민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백운동은 초림의 하늘을 가린 동백나무 숲길과 원경으로 잡히는 월출산 옥판봉, 눈을 시원하게 해주는 강진다원의 차밭, 3만㎡가 넘는 대숲, 기품 있는 매화와 소나무, 아릅드리 비자나무 그늘, 사시사철 옥색 물이 폭포를 이루 흐르는 계곡과 이 물을 끌어와 마당을 한 바퀴 돌아 나가도록 설계된 아홉 구비의 유상곡수가 매력이다.

백운동별서는 한 마디로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이 깃든 곳이다.

이에 강진군은 오는 2018년까지 89억 원을 들여 백운동 일대를 관광 명소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다산과 초의의 예술 흔이 깃든 인근 관광 자원을 산책로 등으로 묶고 백운동서원 인근의 동백나무숲길과 계곡에 생태탐방로를 만든다.

또 백운동별서의 안채와 '백운동도' 등의 그림을 토대로 백운동 일대를 복원하고 백운동전시관 등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이 책에 대해 정민 교수는 "순때 문혀 가귀은 역대 주인들의 이야기, 이곳을 거쳐 간 명류들의 100편을 훨씬 넘는 시문도 모두 책에 실었다"면서 "이 책으로 백운동의 지나온 역사를 다 담았다고 자부한다"고 서언에서 말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

## 다다, 음식잔치 열었다

대인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 풍성한 잔칫상

접시 한 가득 수북한 순대에서는 시장 인심이 물씬 풍긴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휘휘 비벼준 짜장면 한 그릇을 입 주변에 묻혀가며 먹었던 기억이 선하다. 바닷 바람에 잘 건조된 굴비를 발라 밥 한그릇 푹딱하고 싶은 충동이인다.

대인예술시장 창작스튜디오 다다와 별장프로젝트가 4월을 맞아 풍성한 잔칫상을 차렸다.

오는 30일까지 대인수산빌딩 5층 다다 창작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세시봉-재래시장 속 세시풍속'의 4월 주제는 '음식'이다.

이번 전시에는 강선호·김업·김정연·박종석·서영실·이승일·이창훈·정선·조은솔·채지은·최재덕 등 모두 22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정성이 있으면 한식에도 세배 간다'라는 숙담처럼 관람객들에게 아무리 때가 늦어도 정성만 있으면 화려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전시 작품들은 시장에서 쉽게 맛볼 수 있는 음식과 식재료를 소재로 했다. 조왕신이 깃든 아궁이와 굴뚝을 묘사한 작가도 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김창현 '짜장면'

## 베타 사랑 오방색 향기처럼...

서양화가 차향기 개인전, 9~15일 갤러리 D



'베타 사랑 오방색 향기처럼'

서양화가 차향기씨의 다섯 번째 개인전 '베타 사랑 오방색 향기처럼...'이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갤러리D에서 열린다.

차씨는 태국의 관상어 물고기 '베타'를 모티브로 독특한 작품세계를 선보인다. 공격 성향이 강한 물고기 '베타'는 관상어로 손에 꼽힐 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과시하나 다른 물고기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 장군이 베타의 아름다움에 반해 머리를 숙여 물고기를 보는 순간 총알이 머리위로 날아가 목숨을 건진 일화로 '행운'을 상징

하기도 한다.

차씨는 행운과 외로움을 동시에 상징하는 물고기 베타를 의인화해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표현기법 등으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황, 청, 백, 적, 흑의 오방색을 기조로 파스텔톤과 형광톤으로 다채롭게 확장된 색감은 열대 바다 속의 다채로움을 담아낸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차씨는 남농미술대전 특선, 대한민국 여성미술대전 금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22-801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주부엌** 5회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랑**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상준** 원장  
전문임, 전 중산대학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진료문의 (062)227-7575

KT, 중앙초교, 금남로, 개림동, 한화생명, 구한미소핑, 동부소방서